



B2 잉크젯과 B2 오프셋인쇄기 버밍엄에서의 한판승부

Ipex 2010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첨예하게 경쟁해 온 기술의 대결장소가 되었다. 최근 급속히 자리를 잡고 있는 B2 잉크젯은 B2 오프셋에 대항하고 있다. 이것은 참신과 노련의 대결이지만, 그 결과는 아직 안개속이다. 대부분은 B2 잉크젯이 인쇄 산업을 변혁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과연 '게임 혹은 변화'인가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진정한 승자가 나올 것인가?이다.

한판승부를 위한 준비작업

Ipex에서 후지필름은 자사의 '제트 프레스 720' B2 급지방식 잉크젯 플랫폼을 상용 론칭했다. 후지필름은 단기-가동 상용 운영자들에게 초기 최소 시간당 2700매 인쇄가 가능한 신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후지필름 그래픽 시스템의 케이스 달톤 이사에 따르면 B2 업무의 40%~70%가 현재 2000매 미

만에 해당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준비작업 시간은 수익성 보장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또한 후지필름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오프셋 인쇄에 비해 약 25% 감소한다. '제트 프레스 720'은 준비 작업을 단축함으로써 최대 50%까지 파지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달톤은 "시장의 대세는 500~2000매이다. 만약 당신이 2000매 이상의 업무를 위해 설계된 오프셋 프레스로 작업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경쟁력을 잃은 것이다"라고 덧붙인다. 또한 후지는 상업용 인

잉크젯과 오프셋인쇄기

쇄 작업에서 해당 인쇄기를 운용하는 경우, 석판 인쇄술과 비교하여 32페이지 브로슈어 1000매 생산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디지털인쇄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아직 오프셋은 약화된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

Apex 디지털 그래픽의 Ryobi 부문에서 영업 및 마케팅 이사를 맡고 있는 닐 핸드포스는 “료비 750 시리즈 및 세미 오토매틱 플레이트 교환기와 같은 오프셋 인쇄기가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환 시간’을 허용하는 경우 디지털을 통한 준비작업 시간단축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들 디지털 인쇄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 단기-가동 업무들이 있겠지만, 시장 전체를 잠식하려면 상당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Ipex에서 후지필름은 단순한 B2 4색 구성을 전시했지만, 달톤은 ‘제트 프레스’ 플랫폼으로부터 더욱 많은 구성이 도출될 것임을 강조했다. 달톤은 “이러한 기술은 쌍방향 4색 이상, B2보다 더욱 광범위한 포맷으로 발전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또 다른 무엇이 다가올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디지털 제조사들을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은 이들 유연한 기계들의 가격구조 불확실이다. 후지필름은 ‘제트 프레스 720’의 소매가가 약 1백만 불(64만 파운드)일 것이라 말했지만, 달톤은 그 원가가 총 소유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는 반대로 영국 KBA의 상무이사인 크리스천 넵은 “도입 당시에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저렴한 초기 투자비용을 제안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울아낼 수 있다”라고 말한다.

KBA는 넵은 자사의 최신 급지방식 오프셋 프레스가 챔피언에 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Ipex에서 보았듯이 Rapida 75, 105 및 106 프레스 그리고 B3 5색 지니어스 UV 프레스가 전시되었다. 또한 해당 제조사가 자체 프레스 기술을 챔피언에 올리는 반면, 넵은 B2 잉크젯과 B2 오프셋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절충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넵은 “해답은 당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응용프로그램의 형태 및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달려 있다. 개인적으로, 디지털로 인쇄된 문서에 있어, 아주 다양한 지질에 인쇄된 고품질 문서를 원한다면 석판 인쇄가 더 우수한 반면, B2 잉크젯은 더욱 경제적인 접근법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KBA가 Ipex에서 선보인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시간당 1만8000매 Rapida 106의 ‘플라이징 잡체인지’ 기능이다. 또한 병렬 인쇄 및 준비 작업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논스톱 작업 전환이 가능하다. 쇼에서의 프레스 구성에는 동시간 플레이트 변경을 위한 플레이트-실린더 드라이브가 탑재된 KBA의 ‘DriveTronic SPC’가 포함되었다. 또한 준비 작업을 단축함으로써 ‘제트 프레스’와 스크린의 ‘트루프레스’와 같은 기계들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단기-가동, 신속-전환 시장에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다.

대등한 경쟁

넵은 Ipex가 인쇄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준 훌륭한 방향계가 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잉크젯은 무르익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또한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Ipex는 아주 좋은 시점에 개최되었으며 다행히도 그 신뢰와 성공 여부도 적절하게 반영되었다. 나는 Ipex의 역동성이 인쇄시장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프린트위크’의 칼럼니스트이자 디지털 및 프리-프레스 기술의 컨설턴트인 앤드류 트리뷰트는 “구체적으로 동일한 잉크와 지질이 여러 가지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 오프셋은 신속한 전환을 위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만약 B2 급지방식 디지털 프레스의 유일한 이점이 준비 작업이라면, 또한 각각의 인쇄에 대한 당신의 원가가 더 높다면, 또한 당신의 프레스 구매 원가가 더 높다면, 어떻게 그 프레스의 높은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HP 인디고’의 영국 및 아일랜드 지역 매니저인 로버트 스태블러는 B2 포맷에 대한 도전은 결국 원가라고 말함으로써 이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일렉트로잉크와 잉크젯 기술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는 그 적용범위 및 그것에 대한 비용이 핵심이다”라며 “그렇지만, 우리 역시 그것들이 우리의 릴-공급방식 기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인디고 고객을 기준으로, 그들은 품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지만, 더욱 큰 용지 사이즈가 적용될 것 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트리뷰트의 집요한 지적은 그가 B2 포맷의 ‘킬러 응용프로그램’이라고 인용한

잉크젯과 오프셋인쇄기



것을 규명하고 있다. “나는 B2 포맷 프레스와는 경쟁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기존의 많은 디지털 프레스 공급업자와 이것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역 전쟁

스크린은 “‘트루프레스 제트 SX’ 급지방식 잉크젯 B2 프레스는 거의 전적으로 B3 디지털 프레스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제조사는 그 기계가 단기-가동 작업에 대한 다양한 가용성과 함께 신속한 전환과 쌍방향 인쇄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제조사는 기존의 인쇄업자가 B2 포맷에 익숙해져 있는 시장에서 해당 프레스를 공략하고 있으며, 디지털 인쇄업자는 B2 및 B3 포맷 문서를 요구하는 기존의 수주 및 공장 내 운용에 진입하길 원하고 있다. 스크린 유럽의 마케팅 매니저인 팀 테일러는 “인쇄업자가 아주 단기적인 작업을 효율적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길 원한다고 회사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비록 그들의 현재 작업의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들이 개별화할 수 있는 선택권은 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테일러는 그것들이 아직 분명히 B2 오프셋 시장이라고 강조한 반면, 그는 B3 컬러 인쇄시장은 광범위하게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는 ‘트루프레스 제트 SX’가 B2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다. 소유 비용을 고려할 때 테일러에 따르면, 제조사는 인쇄업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며, 클릭당 요금부와 방식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는 이 세 가지 구성품 즉 자본, 잉크 및 서비스에 대해 전통적인 소유형태를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말한다.

당연하게도 하이델베르크영국의 상무이사인 조지 클락은 “사람들은 B2 잉크젯의 단순함에 속게 될 것이지만, 진실은 간단하며, 이러한 주장들은 그리 자세히 조사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제트 프레스’ 및 ‘트루프레스 제트 SX’ 같은 기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운용 기간에 의문을 제기한다.

“당신의 실질적인 평균 운용 기간을 살펴보라”고 그는 촉구한다. “당신 작업의 분포를 살펴보라. 당신의 기존의 장비들이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500회 운용을 해야 한다면, B3 ‘애니컬러’나 심지어 기존의 B3 장비로도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케이스는 성립하지 않는다. 당신의 기존 프레스를 사용하라”고 말한다.

이러한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한 만약 누군가 승리한다면, 누가 승리의 종을 울릴 지 지금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또한 조만간 누군가가 녀 다운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것들은 단지 향후 몇 년에 걸쳐 진행될 경쟁의 시작에 불과하다. 후지필름의 리손은 그의 총평에서 “어떤 기술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차기 IPEX나 차기 DRUPA에서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야, 사람들은 2년이나 4년 전을 뒤돌아보고 자기들이 내린 결정이나 취한 방법이 옳았거나 그릇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철학적 입장을 견지한다. ☺

출처 www.printweek.com (영국)

번역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